

# 론리적인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원길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자, 편집원들과 과학자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 당의 의도를 사리정연한 론리와 깊은 내용, 생동한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해설하는 좋은 글을 많이 써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선집》 제9권 증보판 264페이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설득력있게 해설론증하려면 론문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론리적인 글을 집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들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

론리적인 글이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개념과 범주, 리론적근거와 자료들을 통하여 해설론증하는 글을 말한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원리나 원칙, 사실자료 등에 기초하여 해설론증하는 방법으로 대답을 준다. 론리적인 글에는 교과서, 학술참고서, 론문, 사론설, 강연제강, 보고문 등이 속한다.

글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하여 독자들이 정확히 리해하고 납득이 가게 하려면 언어적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선차적인것은 글을 론리에 맞게 쓰는것이다. 글을 론리에 맞게 쓴다는것은 내용상 앞뒤가 맞물리게, 사실과 리치에 맞게 쓴다는것을 말한다.

론리적인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먼저 글의 체계를 잘 세우는것이다.

글의 체계란 글에서 사상과 내용이 론리적련관을 가지고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글의 골격을 말한다. 학위론문과 같이 규모가 큰 글은 말할것도 없고 소론문이나 학파토론문과 같은 짧은 글을 쓸 때에도 체계를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글의 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여러개의 작은 부분으로 가르고 그것을 일정한 순차에 따라 배열한다는것을 말한다. 글쓰기공정의 견지에서 보면 요강작성이 바로 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론리적인 글의 체계를 세울 때에는 구분과 배열이라는 두개의 론리적 단계를 거친다.

글의 체계를 세우는 첫 단계에서는 글에서 서술하려는 내용들을 구분한다. 흔히 글의 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자료들이 포함된다. 글에서 서술하려는 내용들을 구분한다는것은 글에서 이야기하려는 문제점이나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묶고 가른다는것을 말한다. 구분방법에는 류를 종으로 나누는 방법과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 대상을 측면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글의 체계를 세우는 둘째단계에서는 구분된 갈래들을 배열한다. 배열은 문제점이나 자료들을 일정한 순차대로 벌려놓는 론리적조작이다. 글을 쓸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동시에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몇가지로 갈라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먼저 어느것부터 이야기하겠는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놓겠는가 그리고 마지막부분에서는 어느것을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문제 즉 배열문제가 제기된다.

문제점이나 자료들을 어떤 순차대로 배열하는가에 따라 말과 글의 앞뒤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좌우된다. 말과 글에서 문제점이나 자료들을 배열하는 순차는 여러가지이다. 여기에는 일반성의 순차대로 배열하는 방법, 시간적인 순차대로 배열하는 방법, 중요성의 순차대로 배열하는 방법, 인식의 순차대로 배열하

는 방법 등이 있다.

론리적인 글의 체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우선 구분의 기준을 목적에 맞게, 명백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구분기준을 목적에 맞게 세워야 한다. 실례로 다같이 세계력사에 대해서술하는 글이라고 해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구분할수도 있고 지역이나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구분할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구분기준을 명백하게 세워야 한다. 구분기준을 명백하게 세운다는것은 구분기준이 구분갈래들의 한계를 엄격히 가를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또한 구분갈래들의 합이 구분대상과 범위로 될수록 일치되어야 한다.

글에서 구분갈래들의 합이 구분대상과 범위로 일치되지 못하였다는것은 구분에서 일부가 빠졌거나 혹은 구분대상에 속할수 없는 다른 대상이 더 끼여들었다는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옳게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된다.

또한 구분갈래들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구분갈래들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물론 서로 다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쓰일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단계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동시에 구분근거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같은 단계의 구분은 반드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함으로써 글에서 체계들 사이에 병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분과 배열을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분을 순차적으로 한다는것은 말하려는 내용을 단번에 작은 문제들로 세분화하는것이 아니라 될수록 크게 나눈 다음 매

개 문제들을 보다 작게 세분화한다는것을 말한다. 배열을 순차성있게 하려면 구분갈래들이 호상 어떻게 련결되는가 하는것을 잘 따져보아야 하며 글의 목적과 결부시켜 어떤 순차로 배열하는것이 합리적이겠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구분과 배열을 순차적으로 하는데서 고려해야 할것은 구분갈래들의 위치가 목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것이다.

론리적인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술할 때 글의 내용을 잘 꾸미는것이다.

일단 글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운 다음에는 글의 매 부분에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글의 매 부분들에서는 서로 다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이야기된다. 때문에 구성을 잘 세우자면 매 부분들에서 논의하려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해보고 그에 맞게 글의 내용을 맞물려나가야 한다.

론리적인 글들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은 본질과 특징, 원인과 결과, 정당성과 우월성, 필요성과 가능성, 과업과 방도 등이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우선 본질과 특징에 대하여 잘 해설론증하여야 한다.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데서 가장 기초적이며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글을 쓸 때 본질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체적으로 먼저 논의된다.

본질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필자가 주장하는 개념정의를 먼저 주고 그에 대하여 해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린 개념정의의를 먼저 주고 그 제한성을 밝힌 다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밝혀야 한다.

특징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비교의

대상과 측면을 명백히 밝혀주어야 하며 측면별로 논거를 설정하고 때 측면에서 다른 대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독창성은 특징의 한 종류로서 그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비교대상으로서 선행한것을 제시하고 어떤 측면에서 무엇을 새롭게 해결하였는가를 하나하나씩 설명하여야 한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또한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잘 해설론증하여야 한다.

현실세계에는 원인에 결과가 따르고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 또다시 결과를 낳는 엄연한 론리적연결이 있는것만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론리적으로 인식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론리적인 글을 쓸 때 원인이 무엇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주 제기된다.

원인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어떤 원인을 주장한다. 원인을 주장한 다음에는 필자가 주장한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밝혀야 한다. 끝으로 주장된 원인이 해당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조건과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주장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하여야 한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또한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잘 해설론증하여야 한다.

《주체철학의 정당성과 우월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비롯하여 《정당성과 우월성은 어디에 있는가?》하는 문제는 론리적인 글에서 자주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점들이다.

정당성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다는것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 련관된 규범에 맞는다는것을 설명하

여야 하며 현실에서 긍정적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부당성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이와 반대로 한다. 다시말하여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것, 일반적인 원리나 원칙, 규범에 어긋난다는것,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거나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진보성과 우월성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진보성이나 우월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론증한 다음 앞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논의되는 대상의 실태자료를 다른 대상과 비교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또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잘 해설론증하여야 한다.

사업과 생활의 어느 분야에서나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며 그것이 할수 있는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이로부터 론리적인 글에서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필요성이라는것은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리유를 말한다. 그 리유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다.

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논의되는 대상의 본성과 결부시켜 설명할수 있으며 그 일을 맡아 수행해야 할 사람의 본분과 결부시켜 해설론증할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한 시대의 요구와 결부시켜 해설론증할수도 있으며 특정한 현실적조건과 결부시켜 해설론증할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필요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었다는것을 해설할수도 있고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설명할수 있으며 이미 성공한 실례를 제시할수도 있다.

론리적인 글에서는 또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잘 해설론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로부터 론

---

리적인 글에서도 파업과 방도에 관한 문제가 자주 제기된다.

파업과 방도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파업이나 방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해 론증하여야 한다.

파업과 방도를 구체화할 때에는 목적인 일을 수행하는데서 필요한 요인들을 찾아 그것들을 마련하는것을 구체적인 파업이나 방도로 제시할수 있으며 목적인 일을 수행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요인들을 찾아 그것들을 없애는것을 구체적인 파업이나 방도로 제시할수도 있다.

구체적인 파업과 방도의 합리성에 대하

여 론증할 때에는 제시된 파업이나 방도가 리치에 맞는다는것을 주장하여야 하며 제시된 파업이나 방도가 주어진 실정에서 긍정적인 결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들을 잘 알고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해설론증하는 좋은 글을 더 많이 씀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